

정의와 실천 - 내쉬빌에 모인 연합감리교회 여성들의 중요 안건

글 / Yvette Moore, 번역 / 한영은

Aug. 7, 2007 - 200 명도 넘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원들과 전국에서 온 여성들은 가난, 이민자의 권리, 임금과 다른 중요한 정의에 대한 이슈에 대한 행동을 취하려고 2007 년 전국세미나에 참석하였다. “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뒤흔들어라”는 주제로 스캐릿베넷 센터에서 8 월 11-17 일에 세미나가 있었다.

4 년마다 열리는 이 모임을 통해서 여선교회 회원들은, 목적문에 있는대로 ‘하나님과 알고’ 라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, 정의와 사회적 약자 대변활동(Advocacy)을 위한 지역선교와 세계 선교에 동참하도록 그들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기회를 갖는다.

“전국세미나는 여선교회 회원들에게는 매 순간 하나님이 움직임과 우리가 어떻게 대담하여야하는가에 대한 탐구를 하게 해주는 기회가 된다” 고 여성국의 기독교 사회책임부의 이성옥 총무가 말하였다. “모인사람들의 다양한 인종, 민족과 연령에서, 우리는 초대 기독교인들이 ‘세상을 뒤흔들어 놓는다’고 사도행전에 적힌 그 누명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것이다.

세미나 기간중 참석자들은 7 개의 워킹그룹에 하나를 선택할 것이다. 워킹그룹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.

- 위생 관리
- 이민 문제
- 공립학교 교육
- 경제 정의
- 환경 정의
- 지역사회의 안전한 먹거리
- 군대, 평화와 국가 안전

워킹그룹은 8 월 13 일 주어진 이슈에 따라 내쉬빌에 있는 해당 프로젝트와 기관을 방문하게 된다. 8 월 14 일은 전국세미나의 ‘행동하는 날’로, 참석자들이 내쉬빌의 사회적약자 대변(Advocacy) 그룹과 연대하여 시 안에서 열리는 공공 기도회에 참석할 것이다. 기도회는 폭력과 가난, 이민자들에 대한 기습이 미치는 영향 등에 저항하고, 생활을 보장하는 노동자 임금에 대한 지지에 관한 것이다.

* 이 글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웹사이트 <http://new.gbmg-umc.org> 에 실린 것으로 Yvette Moore (Response지 Contributing Editor)가 쓴 것을 한영은 전도사(남가주 한인 여선교회 연합회 부회장)가 번역한 것이다.

전국세미나의 역사적 배경

전국세미나에 대한 아이디어는 남부감리교의 여성 선교사공회에서 시작하여 현재의 여성국으로 전해졌다. 최초의 전국세미나는 1939 년과 1940 년에 열렸는데 5 주동안 계속되었다. 텔마 스티븐스라는 분이 인도하였고, 스캐릿 칼리지에서 학점을 인정받았다.

감리교와 여성국이 기독교 교육선교부에 설립된 후로 전국 세미나는 1947 년까지 매년 계속되었다. 이 세미나는 각 사람을 인종과 성차별없이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여성국의 가장 중요한 임무였다. 40 년대 이후로는 전국 세미나의 일정이 짧아지고 학점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다. 1949 년-1951 년사이에는 2 년에 한 번씩 세미나를 열었다. 1951 년에는 4 년마다 세미나를 열기로 결정되었다.

전국 세미나는 사회 이슈를 분석하고 실천에 대한 지침에 중점을 두어왔다. 이슈는 사회 정황에 아주 잘 맞는 것들이었고 행동 방안은 구체적인 것들이었다.

여선교회의 선출된 지도자들의 지도력 뿐만아니라 여선교회 회원들의 지도력 개발도 전국세미나의 중요한 면이었다.

* 이 글은 편집자가 정리한 것이다.